

소설 심사평*

임철우, 은미희, 김형중

‘오월 소설’은 한국 문학사에 있어 하나의 하위 장르를 형성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올해 518문학상에 응모한 작품들의 숫자로 미루어 보건대 이 장르의 생명력은 여전히 보인다. 그런데 ‘장르’엔 그것에 속하는 여러 작품들을 관통하는 ‘장르적 관습’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오월 소설’의 경우 그런 관습은 흔히 소재와 플롯에서 발견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때의 소재란 물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종종 이 소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대개 우리 사회의 억압받는 곳을 조명함으로써 소위 ‘광주 정신’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오월 소설의 소재적 관습이다. 플롯에서 발견되는 관습은, 굳이 이름 붙이자면 ‘귀환하는 기억의 서사’라 할 수 있다. 34년 전의 가족사적 비극이 어떤 계기와 함께 잠잠하던 일상 속으로 귀환한다. 그럼으로써, 오월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암시하는 플롯 구성이 이 장르의 가장 흔한 관습이다.

당겨 말하자면, 이번 심사의 경우 가급적 이런 관습에 충실한 작품은 배제하고자 노력했다. 첫째로, 그런 소설들은 이미 충분히 쓰인 바 있어서 독자들에게 익숙해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어떤 장르의 생명력은 답습에 있지 않고, 갱신에 있다. 문학에 있어 구태의연함은 악덕에 속한다. 둘째로, 실제로 읽어보자니 그런 관습에 충실한 소설들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이미 굳어져 버린 관습에 충실하는 일은 항상 그것을 갱신하는 일보다 쉽고, 그래서 아직 소설 쓰기에 미숙한 이들이 즐겨 관습 속에 안주하곤 한다. 셋째로(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 만약 80년 오월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면, 그로부터 향후 한국문학을 주도할 새로운 양식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욕심이 아닐 것이다. 이미 34년이 지나버린 이 시점에, 80년의 광주에 대해 뭔가 할 말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새로워야 한다. 80년 오월을 오늘날의 사회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유의 능력,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내고자 하는 형식상의 고민이 드러나는 작품을 고르려 하는 기대를 포기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양적으로는 더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합하는 작품들이 많지는 않았다. 습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작품들도 많았고, 안이한 작품들도 많았다. 고르고 고르기를 여

러 차례, 세 심사위원들의 손에 일곱 작품이 남았다. <일당>, <가르마>, <당신의 거울>, <평상>, <가방>, <육조>, <열연>이 그 작품들이다. <일당>은 5.18을 우리 시대의 현재적 문제와 겹쳐 놓음으로써 그 저변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높이 살만했다. 그러나 플롯이 지나치게 우연적이라는 흠이 있었다. 급격하고 단절적인 결말 처리도 눈에 거슬렸다. 그에 비할 때 <가르마>와 <평상>은 비교적 관습적인 작품들이다. 가족사 이면에서 여전히 작동중인 오월의 상처가 우연한 계기를 통해 전면화된다는 서사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다. 다만 이 두 작품의 경우 관습적인 소재와 플롯을 취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다루는 어조가 안정되어 있고, 문장과 구성도 일정 수준에 올라 있어 본심에서 거론할 만했다. <가방>과 <육조>는 기존 오월 소설과는 달리 새로운 소재와 상황 설정이 눈에 띄는 작품들이었다. 전자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용 노동자의 일상을 통해, 후자는 오월의 상처 이후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가 겪는 이러저러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독특한 시각에서 오월 문제를 재조명한다. 그러나 <가방>의 경우 구성과 디테일에서 적지 않은 결함이 발견되는데다 문장들 역시 안정적이지 못했고, <육조>의 경우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를 좀 더 개연성 있고 세밀하게 묘사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본심에 오른 작품들 중 유일하게 중편인 <열연>은 한 기인의 이상 행위를 통해 역사적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내면을 불구화하는지를 적지 않은 분량 속에 치열하게 담아낸 뚝심을 높이 사고 싶은 작품이었다. 그러나 아직 문장이 거칠고 구성도 산만해서 정련이 더 필요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결국 세 사람의 심사위원이 당선작으로 흔쾌히 동의한 작품은 <당신의 거울>이었다. <당신의 거울>은 80년 오월의 '정신'이라는 것이 34년이 지난 2014년에는 과연 무엇일 수 있겠는가를 과장 없이 묻는 작품이다. 지극히 일상적인 현재 속에서 내면의 갈등을 유지한 채로 정의롭고자 하는 여성 화자의 심리 묘사가 무리 없이 충분한 실감을 자아낸다. 완성도에 있어서나 주제에 있어서, 그리고 518문학상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었다. 당선자에게는 축하의 말을, 다른 응모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보낸다.